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64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4.

발 의 자 : 김용민 · 강유정 · 한준호
서영석 · 김동아 · 서미화
김 현 · 황운하 · 김용만
문정복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현재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한 자극적인 미디어 매체, 오락물 등에 쉽게 노출되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·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졌음.

범죄 패턴이 강하게, 성인들의 이상동기 범죄와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, 2021년~2023년까지 최근 3년 촉법소년 현황 비율은 2021년 11,677명, 2022년 16,435명, 2023년 19,654명으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.

과거 단순 절도나 폭력에 그치던 것에서 방화, 강간, 추행 등 강력 범죄로 비화하고, 특히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.

촉법소년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미비한 처벌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꾸준히 드러나자 ‘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’을 요구하는 목소리

가 커지고 있음.

이에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,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자 우리나라도 현행 교육과정 제도를 고려하여 초등교육 교과 수료 무렵인 만 12세 정도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.

다만,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의미가 강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제1장 내란의 죄, 제2장 외환의 죄, 제3장 국기에 관한 죄,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함.

이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, 다만 이 법 제1장 내란의 죄부터 제4장 국교에 관한 죄까지는 만 14세로 함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14세되지”를 “12세되지”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 법 제2편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9條(刑事未成年者) <u>14歲되지</u> 아니한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. <단서 신설>	第9條(刑事未成年者) <u>12세되지</u> -- ----- ---. <u>다만, 이 법 제2편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</u>